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건축설계산업 정상화 위해 절실...조속히 이뤄져야”



대한건축사협회가 7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건축 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표준품셈 기반 건축사대가기준, 공공·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관련 다양한 의견 나누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7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건축 설계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

해 “건축사 업무대가 문제는 건축설계산업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까닭에 민간 건축물이라 해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과 각종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전 등 각종 건축기준은 동일한 반면 민간 부

문의 대가는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이어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건축사협회 김혜림 회장은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계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춘 대한건축사협회가 나서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해 적극 힘써줬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4면 계속

팩트체크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붕괴사고 발생 원인 지목 ‘구조설계상 전단보강근 미설치’...구조엔지니어링 수행 ‘구조계산서·구조도면’ 오류가 결정적 영향

LH 지침에 따라 ‘구조계산·구조도면’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작성 의무

건축설계상 ‘구조계산서와 도면 일치 검사 의무’ 책임 있지만,

차후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보고 시

‘구조엔지니어링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협회, 사조위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 재발방지대책 적정성에도 문제 제기

원가절감 목표 시공사 주도 설계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폐지 의견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7월 1일까지 실시한 ‘인천 검단신도시(이하 사조위)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및 현장특별점검 결과를 7월 5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구조계획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최종 결과 발표 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조위는 조사결과 발표 때,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

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결정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했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도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공사 발주청인 LH의 ‘건축구조설계지침’은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작성토록 하고 있다.

사조위가 내놓은 재발방지책 역시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다. 사고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구조엔지니어링의 구조계산 오류임에도 사조위는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이라는 다소 엉뚱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 3면 계속



중소벤처기업부



midas CAD

# 비대면 바우처 지원금 받고 마이더스카드 구매하자!

정부 지원금 400만원 받고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를 만나보세요



▲ 신청하기

사설

### 정확한 조사 결과의 전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오류가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조사 결과 발표 시점까지 접할 수 있었던 사고 관련 뉴스에 시민들이 남긴 댓글을 살펴보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인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판단은 선부른 것일 수 있다.

사회적 의미를 가진 우수한 건축물을 거론할 때 설계한 건축사가 언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사회적 존중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사가 우선적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들이 건축사를 건축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여러 건축 전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디어는 손안의 핸드폰을 통해 쉽게 주요한 기사들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잠깐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사 제목을 클릭하게 하려면 좀더 자극적인 제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이 사고와 관련된 기사 제목 중 '기둥에 철근이 없다'고 표현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자극적인 제목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관계자들은 보강근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라고 파악하겠지만, 국민

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철근 없이 기둥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과장하여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건축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듯이 이러한 건설사고에 대한 기사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영향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구조계획의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인 인식은 모든 관계자를 비난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쉽게 수정되거나 지워지기 어려운 것이다. 최초 기사를 접할 때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만 언급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측에 의한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설계과정의 문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사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표현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다면 시민들의 오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사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서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으나,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다면 미디어는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를 포함한 다수를 비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발표되어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공사 현장의 사고보다는 문화와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역할로서의 건축이 많이 다루어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시론

###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이오상 건축사  
(주)에이오엠 종합건축사사무소

최근 경기도의 한 건물에서 배수 문제 등의 하자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건물이 문제가 되어 수분양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관련 내용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관청에서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히며 업무대행 건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계자 중 책임의 무게가 업무 대행 건축사가 가장 컸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업무 대행 건축사가 수행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업무 대행은 법령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다.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용검사 업무를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한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사항대로 시공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 대행 건축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와 검사대행 소요 시간은 연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제한된 시간 내에 건축 전반에 대해 확인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상당하다.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에 맞추어 확인하도록 하는데, 인허가 허가조서와 다를 바 없는 서식 때문에 허가사항이 적법한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필자는 업무 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는 시공 관련 서류와 현장이 허가 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까지라고 생각한다. 해당 업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맞게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을 수정하여 책임 범위가 명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토 도서별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리스트 정도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규제는 범위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책임에 가까운 것에 비해 건축사의 권리는 개인성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건축 관련 산업이 성장 해오며 건축사의 입지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선배 건축사님들의 희생과 노력에 비례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2023년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시행된다. 건축사들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사명과 역할,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논의 강조됐지만, 건축사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희생됐다.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는 정책보다는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의 본질을 스스로 탐구하고 자정해 나아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건강한 건축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회는 밀도 있는 소통을 해야 하며, 하나가 된 목소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건강한 건축문화 형성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균형 있는 권리와 의무는

건강한 건축문화 형성과

생존을 위한 초석

하나 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업무 대행 건축사가 사용 전 검사 시 허가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건축 단계별 확인의 주체와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질수록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도 불확실하게 표류되어 업무 대행 건축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HIMPSEL

Hueven S+ 스탠드형 환기시스템



Huezentte Palette 욕실 복합 환기장치



ZEROC P 프리미엄 욕실 환기장치



Hueven EBN 천장매립형 환기시스템



Hueven W 벽부형 환기시스템



환기, 선택이 아닌 필수

욕실 복합 환기장치

Huezentte 2

Huezentte 3



힘펠  
대한민국  
집의 가치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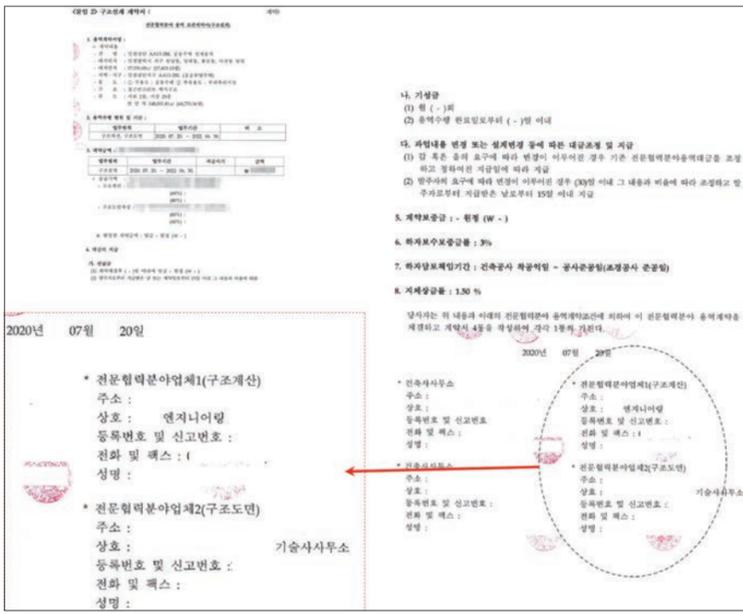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를 도입하는 등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감기에 걸렸는데 배탈약을 주는 것과 같은 꼴”이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사조위는 7월 5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를 지목하며 “전단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과 구조계산 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건축설계상 구조계산서와 도면의 일치 여부 검수 의무가 있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고위 조사결과 발표·보고 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방지대책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조위가 붕괴사고 발생 원인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미흡 등을 꼽은 가운데, 설계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 약화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 있다. 대책 수립에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계산·구조도면 계약서 사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전체 제도운영 문제 해결  
우선돼야  
기술자 관리 체계  
강화만으로는  
부실 문제 막지 못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CMR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

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시공사가 우월적 위치의 ‘갑’으로 균림해 전권을 쥐고 설계자를 지휘하는 설계제도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천편일률적인 LH 공동주택에서 CMR 제도를 쓰는 핵심은 원가절감 때문이다”며 “CMR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된 순간부터 건축사사무소의 갑으로 균림하게 된다. 설계자가 배제되는 순간 이미 안전은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전체 제도운영의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하며, 기술자 관리 체계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부실을 막지 못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한 협회 의견 및 건축계 대책을 수립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국회의원과 간담회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철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 관련한 건축사업계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전과 비율이 건축학과의 열악한 현실과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학교 건축 및 공간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건축이 인간의 삶과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건축사 출신으로서 건축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건축사협회 회원 가입 안내

작년 8월 4일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미가입 건축사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유예기간(1년)이 오는 8월 3일 만료된다. 법에 따라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현재 협회에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 소속건축사는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

인 희망 시 가입이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협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건축사법 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은 건축사 본인이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동 가입 처리된다. 지역건축사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회원가입 안내는 대한건축사협회 정보관리국 경력실적팀(02-3415-6851~3)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뷰 건축사 출신 최초 국회 상임위원장(교육위원장)에 선출된 김철민 국회의원

“국민 생활 환경 조성에 직결된 건축, 건축사 출신으로서 우리 교육 발전·기여 방안 찾을 것”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와 간담회, 열악한 건축학과 현실과 학교공간 혁신 논의 좋은 공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관계와 수행도 좋아질 수 있어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사 수업권, 학생들 학습권 보장되도록 노력 “대한민국 건축사, 미래 세대 위한 학교공간 만드는 데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길”

“교육은 국가의 중추이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나서게 한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어떤 상임위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이하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했고,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 전문성을 토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기민한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지난 6월 30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과 비율이 높은 건축학과와 열악한 현실과 공부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김 위원장은 학교 공간에 아이들의 삶이 깃들고, 역으로 공간이 아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이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어떤 분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국회의원

야보다 높다. 그렇기에 그는 다양한 현안 중에도 올바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적 역할’에 주목했다. 좋은 공간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와 수행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학교 노후 시설 개선

과 학교 공간 혁신 관련해 “건축적 시도와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챙길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철민 위원장은 최근 다양하게 제시되는 학교 건축을 두고 “우리 교육을 위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며 “학교 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더해져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교육이므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많은 재능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공간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학

교 교육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건축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했다. 공간주권이란 ‘학교 공간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공간을 주도적으로 구성·변화시키는 권리’를 뜻한다.

그는 지역 현안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안산 상록읍’에서 활동 중인 김 위원장은 “25년 만의 수인선 완전 개통과 더불어 2025년 4월에는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에 있어 안산이 ‘사통팔달 교통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며 “그러나 안산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공간재구조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구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 고질적 문제인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더불어 학교 노후 시설 개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1면에서 계속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축 설계 산업 발전을 위해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토론회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송복섭 교수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복섭 교수는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염철호 부원장은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건축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이광환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정책 윤정현 위원장,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윤승현 교수,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정책위원회 차은주 위원장,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 서영상 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회의 포문을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이 열었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한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개선과 공공·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대가기준 일원화가 협회 차원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식,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성준 부회장은 “공공 대가를 논할 때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음에도 공공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적어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공공과 민간대가에 차별을 뒤야 할 이유가 없기에 기준을 하나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공공대가 낙수효과 적어 표준품셈 적용 시스템이 대한건축사협회 중심으로 구축돼 마련되길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정책 윤정현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계가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고민해야 하며 표준품셈의 개발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품셈 적용 시스템이 대한건축사협회 중심으로 구축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대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건축포럼 박

현진 이사는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설계 변경을 대비 정산하거나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약사항에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가 기준에 앞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준품셈의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은 “도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과 체크 항목이 필요하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신뢰도 높은 표준 품셈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라고 언급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정책위원회 차은주 위원장은 2017년 12월 개정된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근거로 공공과 민간의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의 일원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간의 경우 공공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차 위원장은 “표준품셈이 만들어져도 공사비 요율을 없애는 건 시기상조”라며 “표준품셈에 근거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정리해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는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재건축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건축계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대가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짧게 의견을 더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윤승현 교수는 “표준품셈을 논하는 건 시의 적절하다”며 “건축물의 숫자만큼이나 설계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 중심으로 표준품셈을 정리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 교수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와 같은 고급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공공·민간 대가기준 일원화, 설계산업 정상화 위한 건축계 핵심과제. 공공대가 기준과 민간 차별 뒤야 할 이유 없다”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정책 윤정현 위원장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시작, 표준품셈 개발 논의부터”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공공대개의 기준도 보완 필요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한국 실정에 맞는 신뢰도 높은 표준 품셈부터 만들어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정책위원회 차은주 위원장  
“공공과 민간의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일원화 법적으로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  
“건축계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대가기준 마련돼야”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윤승현 교수  
“민간이 대가기준 주도하고 공공이 따라가는 기준 정착되길”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축사를 위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이후에는 민간이 대가 기준을 주도하고 공공이 따라가는 기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 한밭대학교 송복섭 교수, “표준품셈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으로 건축 설계 시장 정상화 가능”

민간대가 부재로 설계 분야 인력 이탈과 졸업생 취업 기피 심화 지적

직접비(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 x 노임단가) + 직접경비) + 제경비 + 창작기술료  
\* : 투입인원수 = 기준인원수 x 규모보정계수(a1) x 용도보정계수(a2)  
- 규모보정계수(a1) : 건축물 규모에 따른 투입인원 보정  
- 용도보정계수(a2) : 건축물 용도에 따른 투입인원 보정

건축설계 대가산정 방식의 종류로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다. 이 중 건축설계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 산정이다. 인건비기준이 건축사사무소 별로 상이하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품셈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품셈 기반 건축사 대가기준의 정립이 필

요하고, 이를 통해 설계도면의 품질·감리·사용승인 업무대행 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다.”

7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에서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송복섭 교수는 “민간대가 부재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정책 토론회

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민간부문 건축물 안전과 품질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설계 분야 인력 이탈과 건축학과 졸업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

고 있다”며 “표준품셈 고시안을 마련하고 표준품셈 관리기관을 지정해 매년 표준품셈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건축설계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계획, 교통, 정보통신, 조경 등 산업계 각 분야는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또 표준품셈 마련과 함께 보정계수 운영으로 품셈의 정확도도 보정하고 있다.

때문에 송 교수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에서, 직접인건비 산정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직접비는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 x 노임단가)에 직접경비를 더하고 이외 제경비와 창작기술료도 합하는

방법이다. 이때 투입인원수는 기준인원수에 규모보정계수와 용도보정계수를 곱해 정확도를 보정한다. 규모보정계수는 건축물 규모에 따른 투입인원을 보정한 값이고, 용도보정계수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투입인원을 보정한 것이다.

송복섭 교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건축설계업무 표준품셈을 신설해 건축설계 업무의 대가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축사 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표준품셈의 제정과 개정, 연구, 조사, 보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 “소규모 민간건축 정상화, 적절한 대가 기반한 선순환 구조가 건축설계 산업 진흥의 방향”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 소개하며, 일본 ‘업무보수기준’ 성격 밝혀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토론회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이 발제에 나서고 있다.

“인허가를 위한 최소 수준의 설계 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돼야 하고, 가격위주 수주(경쟁)에서 기술력과 서비스 위주의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건축사 대가기준 논의가 필요하다.”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은 7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방향을 조망하며, 높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과제로 대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축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규모의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자, 월등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일자리형 산업이며, 건축물

의 품질과 품격은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산업이다.

적절한 업무대가로  
근무여건 향상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하는  
건축설계 산업 선순환 구조  
마련될 것

그럼에도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렴한 대가로 낮은 업무효율·기술력과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각종 절차와 기준 강화로 그려야 하는

도면은 늘어나고 있지만, 상응하는 비용은 받지 못하면서 건축설계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정한 대가를 통해 근무여건의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높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염철호 부원장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과도한 비용 감축으로 현저하게 낮은 보수로 계약을 할 경우 설계 등 업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설계,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보수기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며 “설계나 공사감리 등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개별 계약에 있어 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건축사법의 취지나 설계 등을 독립 업무로 두고 있는 사회적 의의 등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 2014년 건축사법을 개정했으며, 소비자 보호와 설계 등 업무의 질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한 대금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66년 7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을 건설부장관이 인가해 최초로 제정된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공공부분의 업무대가만 남아 있게 됐다. 연간 수주액을 기준할 경우 공공부분이 26.5%, 민간이 73.5%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

염철호 부원장은 “소규모 민간건축시장 정상화와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건축설계 산업 진흥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면서 “양질의 서비스기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REPORT

## 법령 제·개정에 앞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한다면?

건축행위 앞서 검토법령 400개 이상, 방대하고 유사 인증중복 심으로 비효율 사례 다수

의원 입법, 국회 접수 법안의 90%...사전에 법안 영향력 분석 절차 없어 국회입법조사처, 건축 분야의 사례로 ‘사전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검토

▶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비교

구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적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도입 연도	-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 시작 - 2010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운영	2017년 국토교통부
인증 대상	신축 및 기존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중 건축주가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평가 기준	-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 10등급 (1+++~7등급)	- 에너지 자립률 - 5등급

▶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 비교

구분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목적	건축안전·기능·환경·미관향상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지역환경 조성
대상	지자체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심의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 지자체장이 건축물의 건축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기준을 공고한 사항 등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배치·규모·형태·가로·외부 공간 등 주요 경관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건축사가 검토해야 하는 법령은 총 401개다. 건축허가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이 137개, 의제처리 법령이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이 235개가 합쳐진 숫자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 교통 등 다양한 분

야의 법령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건축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꼼꼼한 심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경직된 법령 운영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 법령해석의 민원이 빈번하

거나 유사한 심의절차의 중복, 불필요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 분야의 정책 환경을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가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도입에 앞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건축규제 신설 단계부터 ‘예측가능한 문제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측가능한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법안 발의 시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6건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국회에 접수되는 법안의 90% 이상이 의원 입법이지만 사전에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축 분야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건축 분야는 방대한 규제가 중첩돼 관련 규제개선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유사한 인증과 중복되는 심의제도다. 이는 새로운 인증과 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정합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 제도와

경관 심의를 꼽을 수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201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2017) 두 가지가 있다. 모두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해 효과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과 평가 방법이 유사하지만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돼 인증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두 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인증을 위한 법정 소요일도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의 중복도 문제다. 심의 내용과 시기가 유사하지만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이뤄지면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장기화시킨다. 각 심의의 지적사항이 상이하고, 사업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국토부는 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문제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의무적으로 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

원의 부족한 전문성 보안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 과정을 거친 것이다.

하지만 지역 내 전문가 부족으로 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 인력 수급 현황, 채용 방식, 필요 예산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2022년 기준 전국에 1,204명에 불과하다. 현업 종사자 수는 그보다 더 적다. 대다수가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보니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심각하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의무 배치하는 건축분야 인력을 건축사 1명 및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해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시행 근거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앞서 법체계의 정합성,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적정성, 법령의 집행 가능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 인력 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 건축 질의회신 Talk

##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 면적 산정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23.3.20

**질의 요지**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는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호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나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에서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 입법취지가 방만한 농막의 설치로 인한 '재배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 등이 없이 재배농지의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면적'은 전체로서의 농막이 차지하는 재배농지의 면적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함. 농지업무편람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그 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정화조의 경우에도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에는 그 면적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3.6.27

**질의 요지** 마감재료를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를 결합·설치하는 경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모형시험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

**회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가 반드시 공장 등에서 화학적·물리적 방법으로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일체화된 마감재료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감재료를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를 결합·설치하는 경우도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이를 결합·설치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시공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마감재료를 사용된 총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를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를 결합·설치하는 경우 역시 같은 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축사의 직통계단 설치 여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사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2.12.12

**질의 요지** 400제곱미터 3층 축사가 거실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등)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등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축사가 가족을 사육하기만 하는 장소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아 해당 층까지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올 2분기 공공공사 CM 발주 전년대비 13.9% 증가한 1조561억 원 기록

▶ 공종별 CM실적 현황 (단위: 건, 억 원, 억 원, %)

구분	2022년 2분기				2023년 2분기			
	건수	금액	평균	구성비	건수	금액	평균	구성비
건축	144	3,383.00	23.5	36.5	213	4,089.30	19.2	38.7
토목	291	5,429.80	18.7	58.5	266	6,271.40	23.6	59.4
기타	24	463.3	19.3	5	12	201.2	16.8	1.9
합계	459	9,276.10	20.2	100	491	10,561.90	21.5	100

올 2분기 공공공사 CM(건설사업관리) 발주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CM협회가 내놓은 '2023년 2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CM 발주액은 1조561억 원으로 전년 동기(9,276억 원) 대비 13.9% 증가했다.

발주 건수는 491건으로 전년에 비해 7% 늘었고,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1억5,000만 원으로 작년 20억2,000

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 발주금액이 4,194억7,000만 원으로 2분기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동월(2,868억 원) 대비 49.3% 증가한 수치다. 공종별로는 건축분야 발주액이 4,089억3,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상승했다. 발주건수도 전년도 144건에 비해 47.9% 증가한 213건을 기록했다.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9억2,000만 원이다.

토목분야 발주액은 6,271억 원, 조경과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201억 원을 나타냈다. 토목분야는 전년 대비 15.5% 증가했고, 조경과 산업환경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56.6% 감소했다.

업무범위별로는 설계(설계 전)~시공(시공 후) 단계의 발주금액이 260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6%가 하락했고, 설계(설계 전) 단계의 발주금액은 68억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1% 대폭 상승했다. 건수도 전년도 17건에 비해 35.3% 늘어난 23건을 기록했다.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3억 원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별로는 지자체가 5,876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공기관이 3,778억7,000만 원, 국가기관이 906억4,000만 원 순이었다. 박관희 기자

#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확정...전기차충전기 설치 '지하 3층'까지 제한, 지하주차장 충전기 설치 시 내화구조 건축CCTV 의무 설치 등

정부,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

노후 아파트에는 '전력분배형 충전기' 보급

환경부는 6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

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한다. 현재 전기차충전기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4만여 기가 구축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

에는 이동형·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전기설비규정을 올 하반기 개정해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한다. 또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지하주차장은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충전기 설치 관련 지하 3층까지 제한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한 소방청의 화재 진압 범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 9월 6일 개막,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글로벌 영화제로 '스케일' 확장하는 의미 담아

이화여대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관람객 만나, 네이버 TV에서 온라인 상영도 이어져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포스터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개막을 앞두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심플한 형태와 색상 조화를 통해 주제인 '스케일(SCALE)'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

록 했다. 모노크롬에 그래픽화한 건축물을 배치하고, 눈금자와 건축도면, 그리고 서체 디자인을 통해 건축영화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 '스케일(SCALE)'은 지난 15년간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자리매김했던 영화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서울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영화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지난 2009년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역 등 숨겨진 지구촌의 건축영화를 발굴해왔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스케일'을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

어진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9월 10일까지 1차 상영을, 이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상영에 나선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블록을 이용해 직접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블럭하우스', 한옥 안에서 영화를 보고 한옥 전문가와 한옥투어를 체험하는 '한옥 프로그램', 건축의 시의성 있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는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등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영화제를 꿈꾸는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통해 건축과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스케일'이 한층 더 커지고, 건축 고유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관희 기자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특허공법-휴막이(C.I.P)가 연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해외건축 NOW - FRAMEWORK FOR DESIGN EXCELLENCE

# 올바른 정보 정리를 위한 AIA 설계 프레임 워크

건축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미국건축사협회(AIA)는 '탁월한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축사들과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건축사신문도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확장된 시각을 나눠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발견을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준공된 건물에 담겨 있는 다양한 정보값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했다.

- 설계 의도대로 건축물이 구현된 뒤에도 설계자, 사용자, 운영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 완성된 건축물이 최초의 비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건축 과정에 대한 경험담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 건설사업 관리를 통해 얻은 교훈을 프로젝트 팀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발견과 즐거움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 ⑩ 발견을 위한 디자인

#### Design for Discovery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완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설계와 건축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지 등도 생각해야 한다. 준공된 건물에는 건축 교과서에서 말하는 교훈, 성공, 기술, 개선 전략 등이 담겨 있다고 AIA는 말한다. '발견을 위한 디자인'은 정리되지 않은 채 사라지는 풍부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AIA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리 요소를 꼽았다.

첫 번째로 지식 공유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건축사는 새로운 설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구현하며 경험을 쌓는다. 그 경험은 문서화됨으로써 동료 건축사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사내 리소스 플랫폼이나 프로세스를 만드는 편이 좋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 되어야 하는 것은 재난 발생과 그 이후에 건물과 거주자가 어떻게 지내는데 대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고민과정도 정리되어야 한다. 건축 부지의 역사, 역사적 불평등, 건축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문서화 하는 것도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도움이 되는 요소다.

두 번째로 거주자의 피드백이다. 건축물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인 만큼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때 건축사는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위해 목록화해야 한다. 거주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열 쾌적성, 조명, 공기 질, 음향, 일광, 전망, 눈부심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문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간이 설계 의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공간이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도이다. 공간은 사용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사는 건물의 자재 계획 등을 향후 거주자와 함께 논의하고 이행할 수 있다. 이는 거주자를 직접 시스템 작동 방식에 참여시키고, 그 행동의 결과를 직접 인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거주자가 공간을 소유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건물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 설계 시스템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한 요소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제로 에너지 학교인 디스커버리 초등학교(Discovery Elementary School)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례다. 이 학교는 평지 보존이라는 지역사회의 바람,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열린 공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방향 등의 목적성을 충실히 수행했다. 학교의 설계에 앞서 건축사에게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학습을 위한 즐겁고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과 기후위기 상황에 대안이 되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었다.

디스커버리 초등학교는 남향에 위치한 계단식 건축물이다. 운영 자

급에 압박을 받는 공립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태양광을 활용해 건물 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했다. 건물 옥상 전체에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를 모았고, 건물 전체에 풍부한 자연채광을 살리기 위한 설계가 이뤄졌다. 삼중 단열 유리 외벽과 동일한 태양에너지를 PV패널로 저장해 전체적인 비용을 줄였다. 실내도 고품격 재활용 함량이 높은 석고 벽 보드로 구성됐다. 외부 하중을 견디기 위해 단열 콘크리트 벽 시스템과 구조용 철강에 포함된 내재 에너지를 크게 줄여 전체 재료수를 줄였다. 특히 단열 콘크리트 형태의 내력벽 구조는 냉난방 센터의 역할도 한다. 야간에 사용할 전기를 주간에 저장하는 방식을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축된 학교는 기존의 빗물과 위생 하수도 배관도 재배치했다. 사용된 물의 60%는 자연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됐다. 학교 정원에 쓰이는 물에는 저장한 빗물이 재활용되고 있다.

학교의 야외 공간도 식당 공용 공



## 정리되지 않고 사라지는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간과 맞게 설계됐다. 관리 감독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이동시간을 최소화해 학생들이 더 많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좋은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학교 공간의 모든 곳은 모니터링 대상이며 현재 학교 내 61개의 지점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실내 공기 질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축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AIA가 제안하는 열 가지 프레임을 다뤘다. AIA의 열 가지 주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마주한 건축사가 고려해봐야 할 지점들을 상기하게 했다.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 등이 우리 시대의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조아라 기자

사진=AIA

## 제13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 제품안내 ②

대한건축사협회는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추천해 회원 및 일반에게 건축 자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축자재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올해 건축자재 추천서를 교부 받은 30개 품목을 소개한다.

### 16. 내리고 승강식피난기/ (주)아세아방재



아세아방재의 내리고 승강식피난기는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95%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내구성·내식성이 강하며 최대 층고 7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대통령상을 비롯해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받아 국가에서 인정한 화재대피시설이다. nerigo.com 문의 02-422-1191

(주)아세아방재는 26년의 역사를 가진 소방산업 전문기업으로 소방시설제조, 공사, 점검, 관리 등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초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발명했다.

### 17. 점토(황토)벽돌/ (주)삼한씨원



삼한씨원의 점토벽돌은 높은 압축강도와 적은 치수오차로 반영구적 수명을 가지고 있다. 단열과 축열성, 공

기정화, 천연습도조절, 각종 악취 및 이산화탄소 흡착·분해 기능으로 건강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으로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ebrick.co.kr 문의 053-756-0051

### 18. 점토(황토)바닥벽돌/ (주)삼한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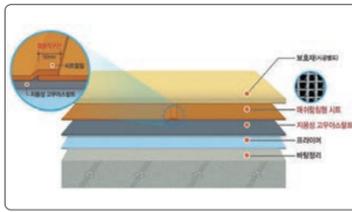


삼한씨원의 점토바닥벽돌은 압축강도와 내마모성, 동결융해성이 뛰어나 100년 이상 사용가능하며, 타 자재 대비 낮은 표면온도로 폭염을 방지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미끄럼과 저항성이 높아 안전한 보행을 돕고, 측면 돌기로 모서리 파손을 방지해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ebrick.co.kr 문의 053-756-0051

(주)삼한씨원은 1978년 창립에 인체에 유익한 순수 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인 점토벽돌과 점토바닥벽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탈리아 모란도사와 독일 링글사의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150여 종류, 1억 만장 이상의 최고품질 벽돌을 제공하고 있다.

### 19. K-TOP 멀티텍 비노출 복합방수/

### (주)예화엔지니어링



예화엔지니어링의 특허제품인 K-TOP 멀티텍 비노출 복합방수는 지용성 고무아스팔트방수 도막층을 형성한 후 매쉬보강 방수시트를 적용하는 제품이다. 도막방수제는 물리적 화학반응 없이 재료의 우수한 물성을 유지하고, 방수시트와 매쉬의 적용은 열융착방식으로 접합하며, 매쉬보강 방수시트 간 결합은 함침형 열융착방식 접합으로 수밀성, 내균열성, 내약품성 등에 있어 우수한 제품이다. yehwa-eng.co.kr 문의 02-3401-1017

(주)예화엔지니어링은 기술력을 강점으로 하는 기업답게 8개의 특허와 신기술을 다수 보유 중이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끊임없이 특화된 공법 개발과 문제점을 보완하며 성장하는 회사다. 30~40년 경력의 방수전문 기술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시공력도 담보하고 있다.

### 20. 내진형 천장 경량철골 시스템/ 공간테크



공간테크의 내진형 천장 경량철골 시스템은 각종 진동과 충격, 지진 등으로 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무게중심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진동에 의한 너트의 풀림을 방지

하고 하부각바의 이동을 제한한다. 편리한 시공성을 확보하면서, 내진형 행거와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개선한 다기능 천장 경량 철골 시스템이다. gonggantech.com 문의 033-641-8914

공간테크는 기술력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믿음으로 에너지, 건설안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품 공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21. 건축내장용 준불연목재 '노블우드'/ (주)신영목재



신영목재의 노블우드(SY-NB-101)는 목재 공극 내에 난연제를 주입하는 패턴식 진공가압 함침 특허를 사용해 준불연 성능을 구현한 실내마감 준불연 목재이다. 화재 취약성으로 목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실내마감재도 노블우드를 통해 사용가능하게 된 것이다.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는 타 소재와 달리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편백나무를 사용해 삼림육 효과와 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shinyoungwood.co.kr 문의 063-464-9830

(주)신영목재는 1994년 창사 이래 수출포장 목재 파넬트, 탄화목 데크재, 혁신제품 노블우드(방염·난연·준불연), 그린다움 사우나를 생산하는 친환경 목재 전문기업으로 미래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목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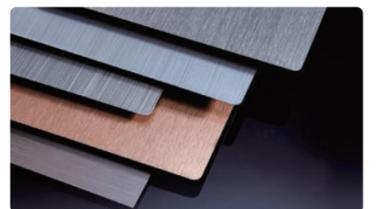
### 22. 내진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창호/ (주)킨키테크코리아



킨키테크코리아의 창호는 단열과 내진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창호이다. 프레임 구조는 평상시에 미세진동을 흡수하고, 지진 발생 시 충격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기밀성과 단열성을 향상시켜 ▲비구조체의 구조적 안전성 ▲에너지 절감 건축 ▲주거생활 안전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이다. 진동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유리·프레임 낙하에 따른 2차 인명·재산피해 역시 저감 가능한 내진성능이 포함됐다. kinteko.co.kr 문의 02-3158-5765

(주)킨키테크코리아는 핵심 기술에 기반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제품 생산과 공간의 안전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와 시장의 요구에 앞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대응하고 있다.

### 23. 렉스틸/ 동국제강



동국제강의 렉스틸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표면디자인을 통해 자연에서 찾고자 하는 모든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기존 철강재의 단점

## 서울 고도기준 새롭게 마련...오류·법원단지 높이제한 해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통해 도심기능 활성화, 여의도 스카이라인·한강변 고도 완화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방향은 남산·경복궁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6월 30일 규제에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신(新) 고도지

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서울시는 현재 주요 산,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8개소(9.23제곱킬로미터)를 지정·관리 중이다.

지정 당시에는 필요성이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

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에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한다.

이에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에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 전문가와 자치구의 논의를 거쳐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과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를 6개소(706제곱킬로미터)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

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미터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제곱킬로미터)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한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미터에서 최대 170미터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높이를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현 높이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약수역 일대는 고도제한 20미터에서 지형차를 고려해 32미터~40미터까지 완화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미터)을 28미터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미터)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미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 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 하고 공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밝히는 자리에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이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고도제한으로 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관희 기자

인 내부식성이 우수한 고내식 원판을 사용해 드라마틱하게 증진시킨 제품으로, 높은 가공성으로 원하는 형상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구성을 통해 제품의 수명주기를 늘려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 친환경 자재이다.

luxsteel.com 문의 010-9291-0822

### 24. 렉스틸 라인패널/ 동국제강



동국제강의 렉스틸 라인패널은 렉스틸을 사용해 미려한 골형태로 성형 가공한 고급 건축용 외장 패널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직선의 반복을 통해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건물을 채워 나간다. 라인패널의 골의 접합은 자체적인 구조적 강성을 가지게 되어 안정감을 더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반사, 통과, 겹침 등의 다양한 빛의 반응을 만들어 낸다. 건축사들을 위한 3D 설계지원 및 현장별 디테일 상담이 가능하다.

luxsteel.com 문의 010-9291-0822

**동국제강**은 철강전문 제조, 유통, 판매기업으로 국내 민간 최초의 철강 기업이다. 주요 생산·판매 제품으로는 ▲건축, 가전용 컬러강판, 냉연도금 강판 ▲조선용 후판 ▲건설용 봉강 ▲건설용 형강 등이 있다. 특히 2011년 론칭한 고급 건축용 컬러강판 브랜드 렉스틸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한층 배가 시켜 건축내외장의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 25. 태양광 금속기와 BIPV/ (유)중앙강재

중앙강재의 태양광 금속기와는 태



양광 모듈과 금속기와를 일체화 시켜 만든 지붕자재로 일반 금속기와처럼 지붕자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금속기와와 동일한 시공법을 적용해 시공이 간편하고, 지붕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금속기와는 별도의 구조물 설치 가 필요 없어 누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내풍압테스트 및 수밀성 시험을 모두 통과해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steelrooftech.com  
문의 063-832-3988

**(유)중앙강재**의 JASCO 금속기와는 세계 약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명품 지붕자재다. 현존하는 지붕재중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가장 강하며, 내구성이 우수해 긴 수명을 갖고 있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목구조택 등에 유리하며,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지붕의 리모델링에도 널리 사용된다.

### 26. 뉴엔스톤패널보드/ UHK 시스템



UHK 시스템의 뉴엔스톤패널보드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정도로 초경량성과 수분흡수율 0%를 자랑하는 독보적 자재이다. 기존 건물에 설치된 외장재 철거공사를 생략하고 그 위에 직접 시공이 가능하며, 광물질로 유약처리된 자기질이라 영

구적 변색과 이색이 없을 뿐아니라 청소도 용이하다. 불연자재로서 열전도율이 낮아 화재예방과 확산방지가 장점이다.

문의 010-6415-3307

**UHK 시스템**은 20여 년간 관공서와 민간기업의 인테리어·리모델링을 운영해 왔다. 최근 5년여 전부터는 건축&건설과 관련된 자재인 뉴엔스톤패널보드라는 초경량 불연외벽자재를 주력으로 관공공사 위주로 유통과 시공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27. 미세균균방진방충망/ (주)이투리노베이션



이투리노베이션의 미세균균방진방충망은 모노필라멘트와 PET소재를 혼용한 원사를 사용, 높은 인장력을 가진다. 모노필라멘트 특성상 부식의 진행이 없어 관리에 따라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망 대비 2~3배 가량 촘촘한 직조원단을 사용한다. 방충망을 통해 먼지 속 유해물질과 유해가스 99%가 사멸된다.

g2shop.co.kr 문의 010-3113-5506

**(주)이투리노베이션**은 최신 생산 설비를 통해 최고 품질의 방충망을 100% 국내에서 제조,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다. 방충망 제조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업계 선도하고 있으며, 전국 2,000여 파트너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

### 28. 콘크리트스킨시리즈/ (주)스튜디오미콘

스튜디오미콘의 콘크리트스킨시리즈는 초고성능콘크리트로 제작한 3D



입체패턴의 건축 내·외장 마감 패널 라인이다. 석재만큼의 내구성을 확보한 초고성능콘크리트는 압축강도, 휨강도, 흡수율, 파괴계수 등 건축외장재에 꼭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장에 따라 맞춤형 3D패널을 제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색상연출도 가능해 건축물에 아이덴티티를 더한 특별한 마감재를 연출하고 싶은 현장에 적용하기에 좋은 마감재이다.

miicon.com 문의 031-831-3620

**(주)스튜디오미콘**은 초고성능콘크리트(UHPC)를 소재로 다양한 영역의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는 소재/디자인 제조기업이다. 초고성능콘크리트로 건축마감재, 조경용 벤치 및 대형화분, 인테리어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추후 비정형건축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29. CS파인징크/ (주)씨에스코리아



씨에스코리아의 CS파인징크는 아연도금강판과 무기질보드가 결합된 제품으로 외장표면의 밴딩현상이 없고, 오랜 기간 별도의 유지보수 없이도 건축물 보호와 준공 당시의 세련됨을 유지할 수 있다. 별도의 합판과 방습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지구조틀(각파이트) 위에 바로 파인징크를 시공해 공기단축 등 시공편의성이 향상

됐다.  
cskorea.net 문의 02-2605-9151

**(주)씨에스코리아**는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기업들과 협력해 CS파인징크, 로얄콘(시멘트) 보드 등 친환경 불연 내외장재를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친환경 불연 건축자재 전문 기업이다. 김포공장을 거점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다수의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어, 국내 건축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 30. 레코스톤/ (주)제이앤에스엘인터내셔널



제이앤에스엘인터내셔널의 레코스톤은 천연석을 박피해 천연석 그대로의 디자인과 기능적인 성능을 유지한 제품이다. 경량화·유연성에 있어 어떤 공간이라도 적용이 가능하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제품으로 개발됐다.

또한 박피 천연석 제품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준불연인증을 취득했다.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일반 석재 대비 5분의 1 수준의 시공시간과 10분의 1의 시공비용을 갖춰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을 모두 확보했다.

recostone.co.kr 문의 02-444-0211

**(주)제이앤에스엘인터내셔널**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준불연제품과 내진설계, 화재예방에 특화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건축자재 제품만을 개발, 생산한 기업이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관희 기자

## FOCUS - 제주대 옛 본관에 서린 김종업의 혼, '되살리기' 본격화

# 1995년 철거된 '제주대학교 옛 본관', 김종업 정신 재현해 되살아나

제주대학교, '제주대 옛 본관 복원·재현 공개토론회' 열고 재건 논의 공론화 및 의견수렴



7월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대학교 옛 본관 복원·재현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토론자 김석윤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김건축), 김정현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경택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부회장, 이주연 건축평론가,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프랑스대사관과 함께 김종업 건축사의 대표작이지만 1995년 철거된 '제주대학교 옛 본관 복원·재현' 논의가 본격화되며, 재건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작년 취임한 제주대 김일환 총장이 제주를 대표하는 건축유산인 제주대 옛 본관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7월 7일 제주대학교가

'제주대학교 옛 본관 복원·재현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생긴 김종업 건축사가 "건축주와 건축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구축된 작품"이라 극찬하며 아꼈던 '제주대 옛 본관' 되살리기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제주대 김일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대 옛 본관은 고 김종업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승격하던 첫해 사업으로 추진된 제주대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이다. 제주대학 발전사의 단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며 "재건 논의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전했다.

현재 복원 작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원래 터가 아닌 곳에 재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제주대 옛 본관이 위치했던 용담캠퍼스에 이를 복원·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 위치에는 이미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고, 사대부교에는 새롭게 건축을 신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어질 위치 선택지는 아라캠퍼스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서는 현재로서는 재건 위치도 다르고 법규상 당시와 달라져야 하는 기준이 많은 만큼 재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표자이자 김종업 선생의 제자로

서 대표작 복원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전한 광재환 건축사(칸 건축사사무소·주)는 "제주대 옛 본관이야말로 김종업 선생님의 내면에 있었던 낭만적인 정신을 유감없이 반영했던 작품으로, 바다를 닮고 바다를 향하는 바다를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이다"며 "바다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본관이 복원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원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장소성인데, 이를 상실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재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바다를 접한 제주의 정체성, 그리고 제주 학생들의 꿈을 위한 설계자의 초기 의도대로 바닷가에 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능에 맞춰서 형태의 형상보다는 역사적·정신적 가치 측면에서 김종업 선생님의 정신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비용 문제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복원·재현하는 데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약 200억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건축물 그 안의 공간은 시대적인 정신 담론을 담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구성해 어떻게 재탄생시킬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대학교 옛 본관 복원·재현은 제주 대학을 넘어 제주 유산이자 더 크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보존·재탄생시키는 측면에서 좀 더 큰 담론으로 어느 위치에(위치), 어떻게(방식), 어떠한 용도로(활용), 소비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비용)에 대해 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추후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공감대 필요성이나 위치 선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거나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토론회를 재차 연다는 방침이다.

장영호 기자

수상 그 후 ⑭

# 2022 강원건축문화상 대상 수상작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춘천시 우두동 자리 잡은 춘천 시민 건강 지원 시설

1층 높이 여러 집이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형상

설계한 심재군 건축사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 있는 시설 구상”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탁월한 작품을 선정해 건축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스물네 번째 작품은 2022 강원건축문화상 대상 수상작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다.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설계자 심재군 건축사\_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심재군 건축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이름에 아직 생소한 이들이 적지 않겠지만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중 하나다.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즉 건강은 특별히 어딘가 아플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함께 챙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만들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의를 보면,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주민 속으로’ 가장 잘 파고들어 자리 잡아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2022 강원건축문화상 대상 수상작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러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너무나 잘 구현한 건축물이다. 일단 건축물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외관부터 그렇다. 설계자 심재군 건축사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붕의 수평적 반복과 변화를 통해 리듬감을 부여해, 전통건축 기와집의 중첩된 이미지를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며 “마음의 안식처로 마을 단위의 촌락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센터 주변에는 높아야 2층 높이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마을 사람들은 주로 논 일과 밭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춘천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아 도시의 여러 혜택도 받는 준(準)도시화 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이런 특성에 맞춰 지역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모든 시설을 1층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실외 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복마당, 중정 마당, 텃밭 마당, 야외 행사마당 등을 계획했다.

기존 보건소의 경우 건강검진과 상담 등 개인별 과업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해야 했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동체를 이뤄 함께 실외 활동을

심재군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심재군 건축사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Q. 이 건축물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춘천시 우두동(우두하리길 21)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춘천시가 선정돼 본격 추진됐으며, 2020년 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돼 설계하게 됐습니다.

공모지침에는 지상 2층으로 설계 하라고 나왔지만, 공공성·접근성을 높이고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1층으로 제안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당선됐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 디자인은 향촌, 즉 시골의 마을처럼 다정다감하고, 고향의 푸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앞 질문에서의)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건축물 중심에 있는 중정을 통하여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자인 개념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붕의 수평적 반복과 변화의 리듬감

부여로, 전통 건축 기와집의 중첩된 이미지를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집을 전형적인 마을의 안식처로서 마을 단위의 촌락을 형성해 형태에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선 공모에 입찰 때, 큰 사무실에서 퇴직한 뒤 혼자 설계를 구상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공건축물이 확보된 공사비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자인 의도대로 준공까지 받주처, 시공자, 감리자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완성된 건축물을 구현하는 작업이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웠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모든 디자인은 자연에서 시작하여 자연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건축, 자연과 융화되는 건축,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건축 공간을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정을

통하여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느끼고, 낮은 전통 담장을 통해, 마당의 개념인 전통 건축의 공간감과 고향의 친근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1층으로 배치했고, 사람들이 모이고, 접촉하고 소통하며 ‘실외 건강사업’을 할 수 있는 중정 마당, 행복마당, 텃밭 마당, 야외 행사마당 등 다양한 규모로 실외 건강사업 마당을 계획했습니다.

**Q.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울 큰 규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해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설계한 첫 작품입니다. 제 설계철학과 가치관이 잘 반영된 설계입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연 건축과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고, 고향 춘천의 자연환경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춘천시가 살 길은 강과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문화도시로서 관광산업으로 향후 먹거리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춘천시가 ‘사람’, ‘자연’, ‘건축’ 도시가 어우러져 사람 냄새나는 도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통해 아직 생가지 않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도 수행해야 하기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2020년 설계공모 당시 주무를 맡았던 춘천시 서영래 정책담당자는 “심재군 건축사님께서 설계 당시 적극적으로 시와 소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멋진 건축물이 완성됐

다”며 “개소 이후 빠르게 지역사회에 센터가 뿌리내리고 취지대로 춘천 시민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선화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도 “센터는 지난해 6월 개소 이후 설립 취지대로 잘 이용되며, 하루에 600명 정도가 센터를 찾고 있다. 요

가, 요리교실, 근력운동교실 여러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센터를 찾는 분들도 의도에 맞게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등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설계자 심재군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 국토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로 국가별 필수 정보 제공

공종별 건축부문에 대한 사항도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국가별 필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7월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지난 6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한다.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시장정보, 조세정보, 진출 전략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별 진출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공종별 건축부문에 대한 사항도 살펴볼 수 있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누리집(https://ocis.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 반지하 거주자 이주비 대출바우처 중복 지원 가능해져...국토부·서울시 맞손

국토부, 이주지원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서울시, 월 20만 원 바우처 최대 2년간 지급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

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반지하 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다세대·연립의 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를 세대별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매입한 반지하 세대를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케 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I AM KIRA 신임 회원에게 듣는다 - 박형빈 건축사(울산광역시건축사회)

# 박형빈 건축사,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해 건축사 자존감 높이고, 건축품질·안전 제고할 수 있길 기대”



박형빈 건축사(시서재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임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협회가 의무가입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대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시민들의 건축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건축설계 시장에도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형빈 건축사(시서재건축사사무소)는 협회가 추진 중인 민간대가 기준 마련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전하며, “건축사들의 자존감 역시 민간대가 제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또 의무가입으로 유일무이한 단체의 위상을 가졌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원들의 건축적 이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길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건축사업계 입문 2년차 박형빈 건축사를 통해 업계에 향한

포부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볼 수 있었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소에 따른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억을 떠올려보면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법 이른 나이였습니다. 사실 ‘건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중학생 시절이었으니까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프랑스로 공부하러 떠나시게 되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무엇을 공부하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건축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막

연히 디자인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건축은 디자인의 영역인 탓에 “나중에 건축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것이죠. 목표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2년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소 이름은 ‘시서재 건축사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삶의 시간과 이야기를 심는다’는 의미인데, 실은 저의 가족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시서 재건축사사무소’로 오인해 재건축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고 물어 오시는 고객들도 있어 그럴 때면 한비탕 웃으며,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가입이 올해를 기해 완성되는데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서재’라는 사무소 이름의 의미가 개인적인 건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가치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시간과 또 삶의 이야기가 덧씌워졌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후자가 말하는 멋진 공간도 누군가에는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감에 있어 사용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맞춰가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시서재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건축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과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소통을 중시하는 박형빈 건축사가 설계한 다대리 주택 전경

협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무이한 단체가 되어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만 되어선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업무와 관련해 가장 불편했던 점이라면 민간 설계대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이 잘 정리가 된다면 지역 사무소간의 출혈 경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민간대가가 최저임금제와 같이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준다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경영자들의 시름을 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민간대가 제정은 설계품질과 서비스 품질 경쟁을 담보하고, 그럼으로써 건축 안전을 실현할 것이며, 건축사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이뤄져 건축설계 시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건축주와 함께 만들어 낸 공간이 실제 기획단계에서 구상했던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되고 값진 경험은 없으니까요. 잘 키운 자식을 출가시키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삶의 활력소가 되는 인연을 쌓아가고, 서로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건축사의 사명과 같은 대의적이고 함축적인 명제도, 오직 생업으로서 건축설계업을 대하는 부분도 각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른 일이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을 대하거나 바라볼 때 기쁨과 희열을 갖게 하는 일이라는 부분을 상기한다면 건축사 서로 간, 또는 집단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을 것이며, 업무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지고 개선될 것입니다.

박관희 기자

# 아가포럼 정기 세미나, “고령자·MZ 세대 등 1인가구 주거선택권·서비스 필요성 높아져”

제8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연날리기’ 작품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수상



7월 4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아가포럼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아가포럼 등이 주최한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함께 단체촬영에 임하고 있다.

아름다운주택포럼(아가포럼)과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한 ‘제8회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7월 4일 서울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모전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 찾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5월 한 달간 작품을 응모 받은 결과 987 작품이 제출됐으며, 심사위원 10명이 작품을 평가해 당선작 33점을 선정했다. 당선작 선정은 공모전 취지, 주제 부합성, 사진의 미학적 완성도 등을 기준해 이뤄졌다.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에는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원아파트의 정나연 입주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본 도봉산의 모습을 담은 ‘또 하나의 창’이 선정됐고, 최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은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연날리기를 준비하는 가족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은 고영훈씨의 작품 ‘연날리기’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대상 작품에 대해 “특별한 카메라 장비나 특수기법 없이도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절묘하게 표현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시상식을 주최·주관한 정장원 아가포럼 공동대표는 “포럼의 목표는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집수리 활동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펼쳐 품격 있는 국토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상식 후에는 2부 순서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커뮤니티 기반의 CO-LIVING’이란 주제의 정기 세미나가 진행됐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고령층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때 고령자 생활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의 자산·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선주현 플랫폼그라운드 대표는 ‘MZ

세대 1인 가구의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해 발제했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유보다는 경험과 공유를 중시한다. 이들 세대는 발달한 디지털 기술로 오히려 고립감이 높고, 도시화 진행으로 1인 가구의 증가, 그로 인한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선 대표는 MZ세대를 위해 다른 입주자와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인 코리빙(Co-Living)을 소개했다.

박관희 기자

주목! KIRA 건축추천자재업체

# 한진테크 최종석 대표, “꾸준한 R&D로 기능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 개발에 집중”

저소비 전력·제품 내구성·시공 능력...국내외로 인정받는 기술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다양한 ESG 활동 이어나가



한진테크 최종석 대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우수 건축자재를 소개하기 위해 자재 추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3개월 동안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한진테크는 전기를 이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 기술로 금년도 우수 건축자재로 선정됐다. 꾸준한 기술개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진테크의 최종석 대표를 만났다.

**Q.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자재로 선정되었습니다. 3개월간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어떤 제품이 선정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전자와 바닥난방 시스템’은 전기를 이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구들난방의 우수성을 현재의 전

기난방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제품입니다. 온돌의 원리인 열전도와 대류를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낮은 전력 소비로 난방바닥의 고른 온도 분포가 가능합니다. 넓은 발열 면적에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전자파 상해도 가능해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외관에 주름부를 주어 건축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르타르 크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주름부로 인해 열전달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Q. 1999년 설립 이후 꾸준한 기술 개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진테크의 대표적인 기술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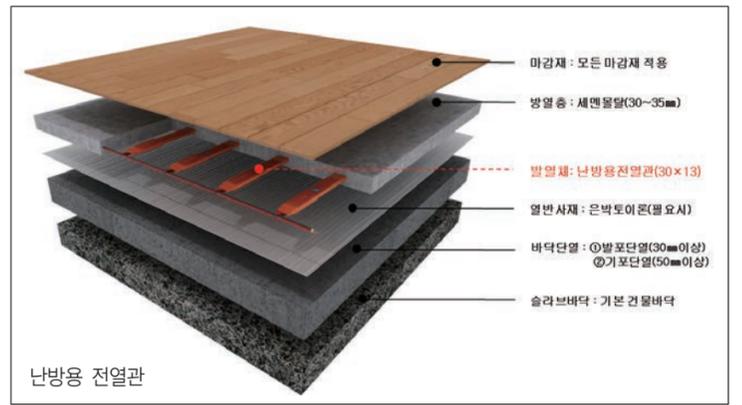
금년뿐 아니라 매년 건축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건축 자재 추천에 오르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진테크의 난방 시스템은 납작한 주름형 밀폐형 이중관 구조로 발열 면적을 넓히고 열전도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소비 전력이 3.3제곱미터 당 400W에 불과해 수전비용과 사용요금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큼니다. 무엇보다 스프링 타입의 이중열선을 적용해 제품의 수명도 연장하고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장을 상쇄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이중관이 축열(蓄熱) 기능을 해 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절연성이 좋고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리드선 고정 패킹을 삽입해 전선과 전선 피복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저희 제품은 방진 방수 최고 등급인 IP68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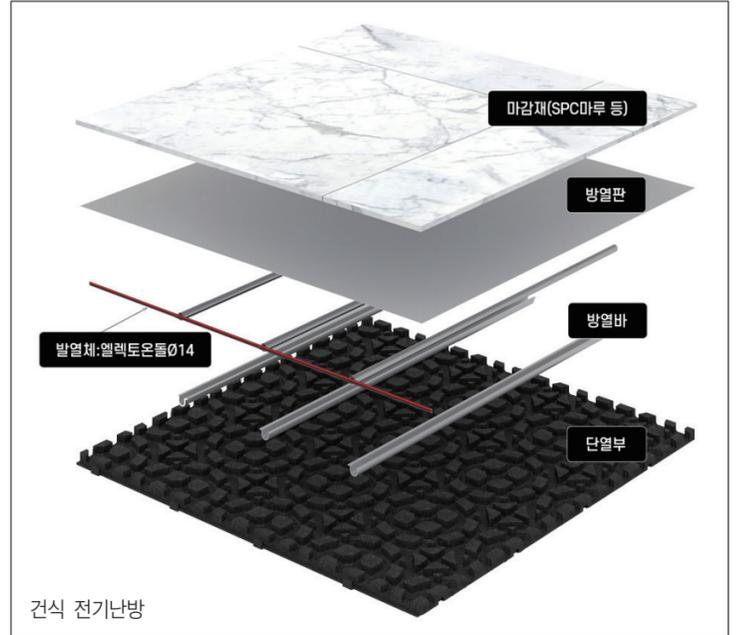
이러한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몽골,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해 직접 현지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다 보니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저희 제품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저소비 전력과 제품 내구성, 시공 능력 등은 한진테크의 경쟁력입니다.

**Q. ESG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 기업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 책임 경영을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



난방용 전열판



건식 전기난방

기 위해 R&D를 진행 중입니다. 회사의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으로 사회 복지 시설을 후원하고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Q.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향**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전과 열정’, ‘기술 개발과 고객 만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R&D와 투자로 소비전력 저감, 내구성 강화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난방 시스템에 있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아라 기자

## MY 부동산 뉴스 | 격주간의 엄선된 부동산뉴스를 콕 집어 전달합니다

# 7월 말부터 1년간 세입자 보호 위한 전세금 반환 대출 한시적 운영

보증금 반환 기일 도래·역전세 상황 집주인 대상  
집주인,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부담 의무화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다. 대출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한 역 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역 전세는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DSR(총부채 상환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적용하는 대신 DTI(총부채 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현재 특례보증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비율을 현재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한다. RTI는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한다. 보증금은 차액 내에서 대출 금액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특약은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대출은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며,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다. 대출 관리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부담을 의무화 한다. 또한, 반환 대출 금액을 은행이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조아라 기자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가능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입법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

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조아라 기자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5월 31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서울건축사회 회원들과 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재록 서울건축사회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에서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과 조민석 건축사(주.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은 서울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사례에 대해, 조민석 건축사는 '창의적 건축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서울 건축설계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혁신도시 디자인 방안의 이해·보완 및 창의적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자유토론도 마련됐다. 토론은 박현진 건축사(주.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의 사회로 강병근 총괄건축가, 조민석 건축사를 비롯해 강승현(인로코건축사사무소), 백창용(해담은풍경 건축사사무소), 양정원(주.건축사사무소 오브) 건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서 주요 건의사항 전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 등 주요 임원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해 상생을 위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건축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워크숍에서 서울시건축사회 임원들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심의 수당이 시·구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산책 공모전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6월 26일 '2023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건축산책공모전은 크게 '제8회 건축사와 함께 하는 우리동네 좋은 집 찾기'와 '제9회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리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은 서울시내 6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응모가능

하며, 청소년 사진 공모전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의 건축물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접수기한은 7월 26일까지며, 8월 1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8월 22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추대회원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추대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단과 추대회원 58명을 포함해 총 71명이 참석해 침성대,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 등 경주 일원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 7월 22일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시·부산대·부산국제건축제조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6기 시민건축대학-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한마당'이 오는 7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개최된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축적 재능과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매해 운영되는 어린이건축한마당은 '집과 함께 떠나는 여행! 집이 살아있다면?'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상상화 그리기(1~3학년)와 상상모형 만들기(4~6학년) 저·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부산시내 재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홈페이지(http://시민건축대학.com)를 통해 접수 받았다. 수상작과 참가작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B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일본 교토부건축사회와 교류**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본 교토부건축사회를 방문해 교류를 이어 나갔다. 대구시건축사회와 교토부건축사회는 격년으로 양 건축사회 총회에 방문해 인적교류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불가능해져 그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다시 방문 교류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의 주요 일정은 교토부건축사회의 정기총회 참가를 시작으로 세미나와 견학으로 꾸며졌다. 특히 세미나는 Resilient City에 대해 총괄감으로부터 개념과 목표, 현재 진행상황과 미래비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구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건축상황, 녹색건축 등 개발과 성장의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각 국의 특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축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앞으로 건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임원 및 위원장 워크숍 진행**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자월도에서 '2023년 임원 및 위원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장섭 인천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하여 총 18명이 참석해 인천시건축사회의 현안 등을 협의했다. 주된 이슈는 지속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회원 실적감소, 그에 따른 회원 및 건축사회의 경제적 부담 증가 극복 방안이었다.

이외에도 ▲설계자의 무료 사용승인 신청 대행 근절 방안 ▲회원 권익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여부 ▲회원 연금제도 등을 위한 법안설립 ▲2024년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방안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유치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 워크숍에서는 회원 일거리 및 권익 증대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TF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디자인캠프 개소식 참가**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30일 충남도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건축디자인캠프' 개소식에 참가했

다. 건축디자인캠프는 '대전콜라주 : 5x5 건축적 상상, 그리고 기억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대전지역 6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7월 3일부터 20일까지 작업을 진행해 7월 21일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지역 건축학도 작품전시회 참석**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7월 4일 대전 예술가의 집 제7, 8전시실에서 개최된 대전지역대학 건축학과 연합스튜디오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과 지도를 맡고 있는 교수진을 격려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천창수 교육감과 간담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0일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과 학교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원호 울산시건축사회장 등 일행은 지역 건축사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종이 없는 전자문서로 각종 심의와 설계검토탄 운영 ▲심의·설계공모 등 위원 추천 시 울산지역 건축전문가 위촉 확대 ▲건축 설계용역 입찰 시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울산시건축사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 예산 편성과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호 회장은 "울산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건축 전문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형 공동주택 건립추진' 간담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1일 시의



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주택허가와, 공동주택 사업관계자들과 '울산형 공동주택 건립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공동주택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지난 1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 통합심의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울산시 이상찬 건설주택국장 및 장경욱 주택허과과장, 구·군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공무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원호 울산시건축사회장은 "울산시 주택허가와 신설에 따른 인허가 업무, 각종 심의 등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울산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울산시가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건축사회, 건축사 실무교육(전문) 실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건축사의 의무와 책임, 위상 강화를 위해 6월 22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조형과학관에서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지훈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도시재생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에이팩엔지니어링 김영진 대표는 '냉난방 설비시스템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접하게 됐고, 해외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례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출판편집팀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동원/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march@donga.com



전문가 역량 확보한 챗GPT 활용 여부가 경쟁력?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신기술로 단연 챗GPT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활용 수준은 정보검색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챗GPT 등 생성형 AI는 '오늘 저녁 식사 메뉴 추천해줘'나 '사업모델 분석 방법 알려줘' 등의 정보 검색이나 추천과 관련해서도 기존 포털 사이트 검색을 압도한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활용도에 머무는 것은 최첨단 컴퓨터를 사서 계산기로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예를 들어 1000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각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취합하려면 문서를 1000번 열어 내용을 복사해 엑셀에 붙여넣고 파일을 닫는 단순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코딩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러 수준의 코딩 능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 전업으로 파이션 같은 코딩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챗GPT를 활용하면 코딩을 전혀 모르는 문과 출신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코딩을 할 수 있다. 자연어로 특정 정보를 가진 텍스트 파일이 1000개가 있으며 이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입력하면 알아서 코딩을 해준다. 실제 챗GPT 3.5 버전으로 이런 명령어를 넣어보니 순식간에 코딩을 해줬다. 짜여진 코드를 실행하는 간단한 방법만 배우면 누구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실감하게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분야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다. 실시간 검색을 반영하는 방책을 활용해 '상사가 퇴근 전에 갑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 소멸 관련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줘'라고 입력하면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내준다.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챗GPT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달라고 하면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같은 효과적인 틀을 소개해준다. 여기에 맞춰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실제 그럴듯한 보고서까지 만들 수 있다.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실린 사례도 흥미롭다. 혁신적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작위로 챗GPT가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하라고 명령한 뒤 하나의 단어를 사용자가 제시할 테니 그 세 단어를 연결해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라고 명령했다. 챗GPT는 '음식'과 '기술'이라는 단어를 제시했고 사용자가 '자동차'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그러자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스마트한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 AI를 사용해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고 음식 온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뿐만 아니라 주문 상태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맛과 품질을 포기하지 않고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를 원하는 직장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제 평범한 일반인도 숙련된 코딩 엔지니어, 디자이너, 창의력 코치, 뛰어난 수학자와 과학자, 인문학자, 예술가의 역량을 모두 가진 챗GPT라는 개인 비서를 갖게 된 셈이다.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회마을을 품은 화천서원(花川書院)

화천서원 전경



화천서원은 안동 하회마을의 부용대(芙蓉臺) 동쪽에 있다. 부용대는 태백산맥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며 정상에서 안동 하회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이 64m의 절벽이다. 이 부용대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옥연정사에서 왼편으로 산기슭을 따라 동북쪽 방향으로 가면 화천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의 이름은 부용대 앞을 흐르는 낙동강 지류의 이름 '화천'을 딴 것이다. 서원은 조선 중기 퇴계 학문을 수학한 문경공(文敬公) 겸암 류운룡(謙菴 柳雲龍)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림이 뜻을 모아 1786년에 건립하였다.

화천서원의 역사

겸암 류운룡은 안동 하회리 출신의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응견(應堅), 호는 겸암(謙庵),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경학행의(經學行義)로 이름이 높아 1572년(선조 5년) 음보(蔭補)로 전함사별좌(典艦司別坐)가 되었다. 이후 유능하고 어진 관리로 이름을 떨쳤으며 1595년에는 벼슬이 원주 목사에 이르렀고 이조판서로 추증되기도 하였다.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받은 겸암 류운룡은 향리에 은거하며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처사적(處士的)인 삶을 회구하였으며 깨끗한 선비정신과 우애와 효도를 실천하였다.

류운룡의 학덕을 흠모한 유림이 정조 10년(1786년) 9월에 경덕사(景德祠)를 세워 그를 봉안하였고, 화천서원은 도산서원 등 향촌 사림의 동의를 얻어 1786년에 건립하였다. 겸암 류운룡의 고절한 생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화천서원이 서원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02년 강당 송교당(崇敎堂)을 짓고 1822년에 문루 지산루(地山樓)를 지으면서부터이다.

1868년(고종 5년) 흥선대원군이 내린 서원 훼철령으로 강당과 살림집으로 쓰인 주소(廡所)만 남고 할리게 된 화천서원은 그래서 한동안 '화천서당'으로 불리었다. 화천서원의 훼철을 아쉬워하던 후손들은 1966년부터 30여년간 기금을 모아 1996년에 복설(復設)하여 지금의 모

습을 갖추고 있다. 서원의 고유 기능인 강학과 배향이 주목적이며 화천서원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강당과 주소를 제외한 건물들은 다시 세운 것으로, 강당에서 만큼은 19세기 이전의 오랜 양식을 찾아볼 수 있긴 하나, 당대 건축물의 특징이나 미(美)가 두드러진 다기보다는 학문을 익히는 장소의 성격이 강하다.

부용대와 함께 하회마을을 품다

화천서원의 강학 공간은 강당 송교당, 동재 존현재(尊賢齋), 서재 전학재(典學齋), 문루 지산루 등으로 구성되었다. 송교당은 동재와 서재가 앉은 자리보다 높게 조성한 단위에 자리하였으며, 처마 아래에는 '화천서원' 현판이 걸려 있다. 좌고우저(左高右低)의 원리를 좇아 동재에는 삼강생들이, 서재에는 하급생들이 기거하였다. 강당 중앙의 대청 좌우로 온돌방 협실이 있는데, 서쪽 방은 주경재(主敬齋), 동쪽 방은 사성재(思誠齋)다.

화천서원은 하회마을 북안인 부용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용대는 정상에서 화천강과 함께 하회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부용대는 처음에는 북애(北崖)라 하였는데, 이는 '하회의 북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부용대라는 이름은 중국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부용은 연꽃을 뜻한다. 부용대의 아래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옥연정사, 겸암정사, 화천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에서 앞을 바라보면 화천 강변의 넓은 모래사장이 눈에 들어온다. 화천 강물이 유유히 흐르며 고즈넉한 서원의 풍경에 운치를 더한다.

강 건너에는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을 잘 보존한 풍산 류씨(柳氏)의 씨족 마을인 하회마을이 있다. 낙동강의 작은 지류인 화천이 하회마을 전체를 감싸며 돌아가고 아름답고 섬세한 자태의 곡선을 가진 화산(花山)이 배경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왼편의 산은 마치 병풍을 펼쳐 놓은 듯하다. 하회마을 오른편으로는 마송정 노송들이 자리하였고 맑은 강물 속에는 부용대가 깊게 그림자를 띄우고 있다.

화천서원은 강당과 주소를 제외한 건물들이 1996년에 복설한 것으로 강당에서 19세기 이전의 오랜 양식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적인 측면보다는 부용대 우측에 옥연정사와 함께 조점 경관을 이루고 있는 학문적 장소성이 강한 건축유구라는 점에 비중을 두어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광덕솔밭길 72 (풍천면)



지산루에서 바라본 화천서원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3,000 건축사 사용중!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 흙, 영혼이 휴식하는 공간

## 건축과 삶

최정권 건축사  
발트 건축사사무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3040,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다’라는 의사의 경고를 기사를 통해 읽었다. 이유는 중독성을 높이는 플랫폼 경제에 노출돼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유튜브·넷플릭스·틱톡 등 영상에 노출되어 수면을 박탈당하는 때가 많은 탓이다. 또한 긴 출퇴근 시간, 불안정한 커리어, 재정 악화, 거주지의 불안, 초가공 식품에 대한 노출 등도 이유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는 가능한 젊은 시기부

터 자연스러운 신체활동과 운동·급연·절주·절제된 식사,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회복 수면, 영적 건강 등으로 노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사의 경고에 깊이 공감하며 공간을 다루는 건축사로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공간은 무엇일까 찾아보았다. 적당한 신체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가치 및 존재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곳은 어디 있을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 있는 장소로 생각되는 곳이 바로 흙이 있는 공간이다.

흙 속에는 30개가 넘는 씨앗이 숨어 있다고 한다. 흙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식물을 돌봄으로 생명의 소중함

과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느낌의 공간으로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기다림의 인내도 갖게 한다. 흙이 만든 식물과 교감을 통해서는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흙이 만든 나무와 꽃은 열매를 맺고 새와 곤충을 부른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생명들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일부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하지만 각박한 도시의 상업, 업무, 거주공간은 이런 흙을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는다. 좀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많은 상품을 진열해야 한다. 주거공간은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해야 하기에 흙이 있는 공간은 사치 같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로와 상대적 빈곤에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흙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화분이 있는 테라스, 공원을 바라보는 창, 텃밭이 있는 옥상, 풀과 나무가 자라는 마당, 마을의 포켓정원과 같은 곳 말이다. 이곳에서 흙은 피곤에 지친 각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한 영혼의 휴식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 흙이 이룬 자연의 장소는 우리의 영혼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건네고 있다.

“모든 나무가 똑같지는 않다. 모두 똑같나무처럼 빨리 성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 꽃도 마찬가지로.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다. 모두 같은 시기에 핀다면 세상은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남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자신의 봄을 일부러 여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월든〉\_헨리 데이비드 소로

## 시로 보는 세상

### 긴 숨은 장마처럼

- 류성훈

긴 숨은 장마처럼  
젖어서 온다. 밤과 날 볼 수 없어  
절상과 어울리는 침상은  
엎드리기 전의 물잔은  
아무도 건지 않는 커튼과  
내 뜨거웠던 도가니와  
내 벌어진 술기는, 그리고 비는  
돌아가기 어려운 쪽으로만 아물었다  
왜 이제 왔어  
왜 아직 여기 있어  
부러진 가지들을 이어 붙이는 계절을  
가을이라고 부르고 싶어  
터진 옷에서 터진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의 밤은 꺾이지 않았어 그렇게  
주여 주여 주여, 뉘를 외치며  
충분히 쓰게 웃던 입술의 꿈이  
빠도 없이 창가에 서 있다

- 류성훈 시집 '라디오미르' 중에서/  
파란/ 2023년

이별은 대개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특히 남녀 간의 이별은 더욱 그렇다. 이별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에게도, 이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단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칼에 베인 듯이' 느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 된다.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래야 그 사람과의 지나간 시간들이 부정적이라도 보상되기 때문이다. 이유를 몰라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다. 붙잡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 "빠도 없이" 주저 앉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함성호·시인〉

## | 발언대 |



허도윤 건축사  
ANA 건축사사무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료가 없다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 소속감과 동료의 중요성을 새삼 알았고, 저녁에 동료와 같이 술 한 잔 하는 즐거움이 그리울 때가 많았다.

최근 20대가 일하지 않고 쉬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듣고 놀랐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쉬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거나 정신적으로 충전시간이 필요해서 또는 조직생활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는 청년들의 공백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고, 일을 통해 보람을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 번째는 일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이다. 전공과 관련 있건 없건, 단순한 일이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해야 만족감과 성취감이 생겨 그 일에 없던 애정도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관계, 계획, 미래 등에 있어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먼저 완벽한 관계는 세상에 없다. 우리는 회사에서 상사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관계에는 기복이 있다. 좋을 때도 있고, 이견이 있어서 어색할 때도 있으며, 때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알아가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항상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 미래 또한 없다. 필자는 고민이 있을 때 산책하면서 문제의 답을 구하곤 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천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의 불안정한 요소를 찾고,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계획과 미래를 수정하고 조절했다. 완벽

한 계획은 변화 가능한 요소로 치환해야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알아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고 찾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포기하는 과정을 '하비'라고 생각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직업도 자신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면 자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이 개인의 문제로 한정할 것 같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청년이 하루하루 알찬 하루를 보내기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일을 찾는 과정

필자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가장 힘들어 했던 점은, 일이 없는 것보다 사무실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었다. 운영에 대한 부담보다 한 공간에 혼자 있다는 것, 일에 대해 논의할 동

## 포토 에세이



베트남 호찌민 무이네 해변. 몇 명의 젊은이들이 물고기를 잡더니, 힘을 합쳐 배를 해변가로 옮겨 놓는다. 잡은 물고기를 들어 보이며 떠들썩하게 웃음을 나누던 그들이 떠나자 해변에는 작은 조각배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출렁이는 파도를 이기며 제 할 일을 다하고, 쉬고 있는 조각배! 편안해 보인다. 새파란 하늘과 흰 물결구름, 모래사장엔 비친 고요한 반영을 어찌 사진으로 오롯이 담을 수 있을까.

정병협 건축사 · 나은 건축사사무소

## 소나기가 그친 후의 무이네 해변

**건축만평**

강정삼 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대강당

1차 **2023.06.27.TUE**  
14:00

2차 **2023.07.18.TUE**  
14:00

구분	행사내용	비고
14:00~14:05	개회 및 국민의례	김철훈 총무이사
14:05~14:10	참석자 소개	권연하 부회장
14:10~14:15	인사말	석정훈 회장
14:15~14:20	협회 홍보동영상 상영	
14:20~14:40	협회비전 및 정책 방향	석정훈 회장
14:40~14:50	협회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박성준 부회장
14:50~15:40	건축사 윤리규정 강의	함인선 건축사
15:40~15:50	회원지원센터 및 건축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박춘하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장
15:50~16:00	질의응답	
16:00	폐회	

참가시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1시간), 자기계발(1시간) 총 2시간 인정

 **대한건축사협회**